

나가서 일을 하라는 남편(오세정 씨의 부군은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로 잘 알려진 김상중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힘입어 오세정씨가 택한 일은 공연 기획.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 스타'의 캐스팅, 홍보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텔런트 유인촌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유'의 기획 실장으로 영입돼 '문 제적 인간 연산', '파우스트' 등의 히트작에 참여했다.

사람한테 치인다는 표현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공연 기획일. 같은 판에서 활동하니 자연 마주치는 일도 많아졌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며 고민도 의논하며 풀게 됐다.

기획자로서 오세정 씨의 장기는 이미지 캐스팅. 실력도 중요하지만 배우가 무대에서 보여 주는 매력을 최우선으로 중시한다.

"정화요? 친구라서 그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요. 미모, 노래, 연기 삼박자를 갖춘 좋은 뮤지컬 배우예요."

오세정씨에게 이정화 씨는 예쁘고 청초한.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일급 배우다. "남자 관객들이 정화 보면 뭐라하는지 아세요? 한 번 데이트해 보고 싶어요."

물론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오세정 씨는 이정화 씨에게 주연 대신 '빛나는 조연'을 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이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사실 이때가 배우로서는 참 슬픈 시기라고 해요."

새삼 친구를 염려하는 세정 씨 옆에서 웃고 있던 이정화 씨는 지금이 자신에게 있어 전환기임을 인정한다. 주연만 두루 거친 20대 시절과는 달리 어 중간간 입장이 되어 버린 지금, 이제 정말 배우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서른세 살 나이에 맞춰 주연이 아니라도 좋은 역할을 골라 맡는다. 여기에는 '내가 되라'는 세정씨의 충고가 큰 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 출연하고 있는 '42번가'의 도로시 역도 '빛나는 조연'이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여배우 도로시. 무대에서의 친구를 지켜보며 오세정 씨는 '물이 올랐다'며 칭찬에 여념이 없다.

네 살난 아들까지 두고 있는 세정 씨와는 달리 이정화 씨는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 그녀는 아직 남자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한다.

오세정 씨도 빨리 시집 가라고 재촉하지는 않는다. 비록 남자에는 관심없고 동화 속에 사는 여자라서 나이에 맞춰 행동하질 못한다고 면박을 주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정화는 예술가잖아요. 친구의 예술관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강제로라도 결혼시켜야죠."

패션 센스가 남다른 이정화 씨는 오세정 씨의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준다. 오죽하면 세정 씨의 어머니가 "너는 정화가 골라준 대로만 입어라" 하실 정도. 인터뷰가 있던 날도 오세정 씨는 정화 씨가 사다준 블라우스를 입고 메이크업까지 조언받았다.

부산 기질인지 무뚝뚝하다는 이정화 씨. 반면 오세정 씨는 사근사근한 편.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세련된 남자와 덜렁대는 여자 커플로 비유한다.

이제 무대에 선 지 11년을 맞는 이정화 씨. 그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뉴욕에서 감명 깊게 보았던 '미스 사이공'의 주연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한다. 무대에 헬기가 등장할 만큼 거대한 세트 탓에 아직 국내 공연이 어렵지만 그는 '언젠가 라며 소망을 드러낸다.

같은 배우로 만났지만 정화 씨에게 한번도 질투나 경쟁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오세정 씨. 연기에는 전혀 미련이 없다. 오히려 뒤늦게 입문한 공연 기획일이 적성에 맞아 불만만 고기처럼 들떠 있다.

그에게도 꼭 만들고 싶은 무대가 있다. "한국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뮤지컬들, '캣츠'나 '아가씨와 건달들' 같은 작품들을 전혀 새로운 캐스팅으로 다시 올리고 싶어요."

그 일이 현실로 옮겨진다면 이정화 씨도 캐스팅할 건지 궁금해진다.

"물론이죠. 이 친구는 타고난 배우예요."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충만한 사람들. 미지않아 관객들은 무대 위와 뒤에서 두 여자가 엮어내는 한

판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

## 화가 윤석남 & 사진 작가 박영숙

**'어머니' 연작으로 인정받은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 주자 윤석남. 여성의 '몸'을 찍어내는 사진 작가 박영숙. 이제 서로의 얼굴만 봐도 말이 통하는 두 사람의 군불지피듯 서서히 다가오는 20년 우정의 역사를 듣는다.**

"그냥 반가운 친구로는 성이 안 차요. 논쟁할 수 있는 친구. 치열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여야만 해요."

그들의 만남은 2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첫 만남은 71년으로 거슬러 간다. 윤석남 씨는 33세의 전업 주부, 박영숙 씨는 주부였지만 이미 개인전까지 치른 31세의 사진 작가였다. 사장이 여의치 않아 그림의 길을 놓쳐 버린 윤석남 씨에게 박영숙 씨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수줍어 했었지요. 난 틈틈이 유희를 그렸지만 본격적인 작업을 늘 하고 싶었어요."

여성 사진 작가가 드물던 시절, 박영숙 씨는 남자동료들의 편견에 질려 '그림하는 친구들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친구의 작업실을 찾았다가 윤씨를 발견했다. "저 친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요. 난 처음부터 굉장히 그를 좋아했죠." 겉으로는 팔 팔하지만 내심 소극적인 박영숙 씨. 기분 좋은 친구구나 하면서도 공통 관심사가 없어 망설였던 윤석남 씨. 둘은 몇 년 동안 무뎠던 사이로 지냈다.

79년, 드디어 윤석남 씨가 마흔의 나이로 그림을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심사가 일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친구들과 과연 작업실, 박영숙 씨는 들어서자마자 저절로 탄성을 질렀다. 서북향으로 난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공간. 그 속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친구가 너무 '예뻐 보여서'였다. 어딜 가나 광선만 보인다는 사진쟁이답게 그는 윤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82년 윤석남 씨는 첫 개인전을 열었고 개인 작업



“그냥 반가운 친구로는  
성이 안 차요.  
논쟁할 수 있는 친구,  
치열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여야만 해요.”



박영숙 & 윤석남

실도 마련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영숙 씨는 친구 집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찾아가는 결벽증을 이기고 어렵게 발길을 했다.

작가의 작업은 늘 어렵다. 하루 종일 작품만 마주하고 있을 만큼 잘 풀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박씨의 방문은 윤씨에게 너무 반가웠다.

“정신적으로 밀착된 시기였죠. 이 친구는 창작자로서의 기질도 있는데다 부족한 곳을 꼬집어주는 교사 같은 재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윤석남 씨의 회고다.

사실 둘의 성향은 사뭇 달랐다. 친구들 사이에서 ‘은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온화한 윤석남 씨에 비해 박영숙 씨의 별명은 ‘열비’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한 화통한 성격 탓이다. 관심 분야도 달랐다.

윤씨는 민중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비해 모더니즘에 깊이 빠진 박씨는 본인 말대로라면 ‘부르주아적’이었다고.

84년 늦각이로 대학원에 입학해 조형 심리학을 전공하던 박영숙 씨는 민중 미술의 철학적 주장은 잘 모르지만 조형적인 방법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계에는 백치라며 손사래를 치는 윤씨에게 억지로 사진을 가르친 것도 그 연장선에서였다.

‘사진과 회화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윤석남 씨와는 달리 두 장르의 구분이 없어져 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물론 윤석남 씨도 영향을 주었다. 85년을 전후해 페미니즘에 눈을 뜬 그는 왕성하게 이론을 공부했고 여기에 친구도 끌어들이었다.

“우리 그때 페미니즘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론의 초창기라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결론도 뭐 그리 대단한 양 즐거워했죠.”

88년 여성주의 문화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와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전-우리 붓물을 트자’가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이때 박영숙 씨도 참여했는데 이때부터 둘은 공동 작업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89년 늦가을 느닷없이 슬럼프가 윤석남 씨를 기습했다. 이때 탈출구가 되었던 게 바로 박영숙 씨와의 공동 작업이었다. 서로 완전히 믿는 두 친구가 같은 공간에서 작품을 논하며 힘을 모은 것이다. 그 성과물이 92년 발표된 ‘자화상-우리 이야기’. 유방암 수술을 받아 한쪽 가슴을 잘라낸 박씨의 셀프 누드 사진에 윤씨의 나무 설치 조각이 합쳐졌다.

“그때 정말 친구다운 친구를 만났구나 했죠. 처음 ‘딸과 아들’이라는 설치 작품을 만들었을 때인데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서로를 정신적인 지지자라고 하는 두 사람. 그러나 우정이 깊은 만큼 싸움도 격렬하다.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틀리면 이삼 일씩 말도 않고 지낼 정도.

지금은 둘의 공동 작업은 일단 접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윤석남 씨는 어머니 연작 시리즈를 마감하고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6월 20일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지의 초대전 일정도 뽕뽕하다.

박영숙 씨는 두 개 대학에 출강중이다. 특히 그는 모교인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가정 주부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데 열심이다. 늘 관심 있는 여성의 ‘똥’도 계속 탐구할 생각이다. 그러나 박영숙 씨가 강의를 쉬는 방학중에는 늘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실 정도로 붙어 다닌다. 서로의 작업실도 지척에 있다.

“때로는 서로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죠.”

이제 12월쯤 여성 작가들을 규합해서 일을 벌일까 한다는 두 사람. 20년을 넘어 30년을 바라보는 그들의 공동 작업이 다시금 기대된다.